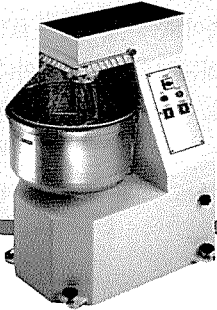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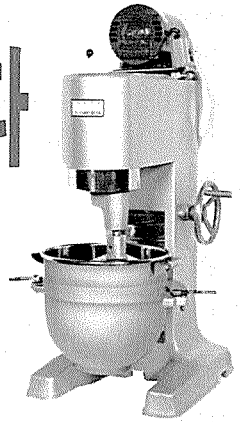


믹서기 구입, 이런 것을 알아야 한다

업체별 믹서 종류, 구입시 점검 사항



믹서기는 성능이 우선되어야 하고 견고성이 요구된다. 이에 본지는 현재 어떤 업체에서 어떤 믹서기가 판매하는지와 구입시 점검 사항에 대해 소개한다. 단 여기에 게재되는 믹서기는 제과점에서 가장 많이 사용 제품을 위주로 했으며 제품을 직접 제조 또는 수입 판매하는 업체로 한정했음을 밝힌다.



●국내 믹서기 제조 및 수입 업체 실태

국내

국내 믹서기를 판매하는 업체는 많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직접 제조·판매하는 업체는 마포산업, 성일기계(판매는 히트레이딩), 중앙공업 정도에서 불과하다. 나머지 업체는 이들 업체에서 공급받아 판매하거나 제조만 하는 업체에 주문해 판매하는 실정이다.

수입

국내 믹서에 비해 판매 수량은 많이 떨어지거나 수입 믹서를 판매하는 업체는 10개 정도된다. 수입국 품목을 보면 일본이 4품목으로 가장 많고 이탈리아 3, 독일 2, 프랑스·미국 각각 1품목순을 보이고 있다.

●국내품과 수입품의 성능 비교

수입 믹서기는 몸체 제작에서도 전량 금형 제작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철판의 두께도 두꺼워 견고함을 자랑한다. 그러나 국내 믹서기는 마포산업, 성일기계, 중앙공업 제품만이 금형 제작이고 나머지 제품은 부분 부분을 용접해 결합한 형태이며 철판의 두께도 평균 5mm로 얇아 견고성에서 뒤진다.

또한 국내 믹서기는 모두 변속장치도 '미션'이라는 자동차의 중고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수작업 제조로 인해 소비자의 믹서기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인 흑과 불의 중심이 정확히 맞지 않아 반죽이 잘 쳐지지 않는다던가 흑이 불을 치는 문제, 불과 불잡이 부분이 꼭 조여지지 않아 심하게 흔들리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가격대 및 A/S사항

가격

국내품과 수입품은 가격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국산은 최고 가격 제품이 250~400만원이며, 제조 업체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하는 업체 제품들은 16인치 기준 150~160만원대, 이른바 상표없이 소비자가 직접 구입하는 제품은 150만원 이하

가격이다. 반면 수입 제품은 종류마다 큰 차이가 있으나 550~800만원대로 고가이다. 특히 미국산 '호바트'와 일본산 '아이코' 믹서기가 가장 고가인 800만원대이다.

A/S

무상 A/S 기간은 수입 믹서 경우 삼우통산 2년을 제외하고 대부분 1년이며 국내품은 대부분 2년 정도이다. 한편 소비자가 제조 업체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이른바 '청계천' 제품은 A/S를 기대할 수 없다.

●믹서기 구입시 점검 사항

몸체가 금형 제작된 것은 부분 용접한 것보다 튼튼하다. 그러나 값이 비싸다. 수입품의 성능은 대부분 비슷한 수준이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수입품에 비해 고장 면에서 떨어지는 국내품 구입이 문제인데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기어, 회전축, 베어링의 질, 흑과 불의 중심 일치 등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최대한 확인할 수 있는 점검 사항과 참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구입 예정 가격보다 조금 더 비싼 것 구입

가격이 싸다는 것은 부속품, 조립상태, 사용 재료 등에서 떨어진다 것을 의미한다.

2. 시운전시 소음과 진동 상태 확인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시운전시 소음과 진동이 타 제품보다 큰 것은 추후에 꼭 문제가 생긴다.

3. 정확한 제조 및 판매처 제품을 구입

제조 및 판매처 표시가 없는 제품은 질면에서 떨어지며 고장 시 A/S를 받을 수 없다. 두고두고 애물단지가 된다.

4. 시운전으로 흑과 불의 회전시 간격을 본다.

저속으로 돌려 흑이 회전할 때 불의 양쪽 사이 공간이 일정해 야 사용 도중 흑이 불을 쳐 찌그러지는 문제를 점검할 수 있다.

5. 불의 양면에 있는 불고정 철판의 두께를 살핀다.

불 고정 철판의 두께가 얇으면 오래 사용시 철판의 구멍이 커지고 휘게 돼 고정시키는 힘이 약해져 진동의 원인이 된다.